

한국의 동남아연구 성장과 포괄성 문제*

전 제 성**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아연구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우리 학계의 당면과제를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발간된 모든 학술적 성과(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를 아우르는 연구총량 추이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연구 역사, 연구 축적 경향, 연구자 규모로 나뉜다. 연구 역사는 우리의 인식보다 더 오래되었고 탈중심적이었다. 연구 축적은 점점 더 다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문연구자의 수도 예상보다 많았다. 이렇게 새로이 발견된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은 우리 학계의 포괄성 증대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양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학문적으로 방대하게 펼쳐지고, 국적도 초월하는 한국의 동남아연구 추이에 비하면, 우리 동남아학계는 협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동남아학회가 포괄성을 증대하려면,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소규모 연구회들을 개설하고, 동남아 출신 국내 대학원생들을 초대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점으로서 대학 거점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NRF-362-2008-1-B00018). 이 논문의 요지는 2017년 12월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초청 강연회에서 처음으로, 이어서 2018년 여름에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와 한국동남아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발표를 듣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한국동남아학회 회원의 전문성 분류 정보를 제공해준 총무이사 김형중 교수,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관련 연구의 수량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전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김현경양, 관심과 애정을 갖고 초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신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이한우 교수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각별히 감사한다. 이러한 도움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필자 탓이다.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제어: 한국동남아학회, 학계, 지역연구, 지역전문가, 포괄성,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아세안

I. 머리말

우리는 ‘우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자이지만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 연구자 규모, 연구 축적 추이, 학계의 조직물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재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학계의 당면과제를 새로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논문이 작성되었다.

한국의 동남아연구 동향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이른바 ‘동남아학회’ 중심으로 기술하거나(전제성 2006; 오명석 외 2008; 박승우 2009; Park 2013), 1990년대 이후에 발간된 단행본과 대표 학술지 논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신윤희 2015), 특정 학문 분야와 관련된 업적만을 대상으로 다루었다(전제성 2010; 박번순 2010; 나희량 2012; 최병욱 2015; 윤대영 2012; 전제성 2014; 여운경 2016; 김소연·강하니 2018; 강희정 2018).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한국의 동남아연구 동향을 전수조사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지난 6년간 추진되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아시아리뷰』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연구동향(김형준·전제성 2013)과 베트남 연구동향(이한우 2013)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김형중 2013), 미얀마(오윤아 2013), 캄보디아·라오스(정미경 2014), 태국(김홍구·이미지 2017), 아세안 연구동향 분석(김형중

2017)이 연속으로 게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에서 최근 데이터까지 확충하여 다시 발표되었고 이 때 필리핀 연구동향 분석(정법모 2018)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동남아 국가별 연구 동향 분석으로서는 최초의 작업이었고, 모든 학술 발간 형태(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및 단행본)와 전체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연구 총량 추이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작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조사 성과들을 이어받고 미진한 데이터는 추가로 조사함으로써 한국의 동남아 연구 역사와 경향의 종합적인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발표된 8개국과 아세안 연구동향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되, 비교분석을 위한 필자의 틀에 조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부 데이터는 따로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한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관련 연구 성과에 관해서는 보강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성과 중에서 인터넷으로 학술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자료에 한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면서 학위논문의 경우는 국회도서관 데이터도 참고하였다. 국명이나 아세안을 제목에 포함하는 연구성과들을 검색하였으므로, 동아시아나 아시아라는 지명만 제목에 포함한 연구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량적인 분석이 주된 방법이었기에, 정성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된 문제와 과제들(오명석 외 2008; 신윤환 2015)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도 안고 있다. 전수조사를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질적인 검토까지 추진되기 어려웠고, 종종 상충하는 출처들 사이에서 연도와 수량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조차도 버거웠다는 변명을 덧붙인다.

본문의 서술은 연구 역사, 연구 축적 경향, 연구자 규모 순으로 전개된다. 연구 역사를 선구자 추적의 방식으로 제시했고, 연구 성과

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어느 분야가 강세인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연구자 규모를 개방적으로 가늠하여 나름대로 동남아 전문가의 수를 추산했다. 이렇게 새로이 발견된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이 우리가 속한 동남아학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성찰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그것을 압축하자면 학계의 “포괄성”(inclusiveness) 증대라는 과제로 귀결된다.¹⁾ 양적으로 끊임 없이 성장하고, 학문적으로 방대하게 펼쳐지고, 국적도 초월하는 한국의 동남아연구 추이에 비하면, 우리 동남아학계는 협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II. 연구의 역사: ‘미지의 시대’ 발굴하기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아마도 1980년대부터 가시화되었고 1990년대부터 가속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 인식일 것이다(전제성 2006; 박승우 2009; Park 2013). 그런데 ‘황무지’처럼 여겨졌던 시기에 많은 선구자들이 등장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새로 인지하게 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한국에서 동남아에 관한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학술 저서의 첫 작품들이 출현하였다. 브루나이와 동티모르 연구가 예외적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연구업적이 발간되고 나머지 나라들과 아세안에 관해서는 1950-60년대에 첫 번째 연구 성과가 등장하였다. 발굴하듯이 조사하여 <표 1>에 제시된 선구적 연구자들 중에는 필자 세대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1) “inclusiveness”는 저명한 민주주의 연구자 로버트 달에게서 빌려왔다(Dahl 1971: 4). 그는 참여의 정도를 가리키는 포괄성을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역사에서 가장 뒤늦게 발전한 제도로 지목하였다(Dahl 1998: Chapter 8).

<표 1> 한국의 동남아연구 선구: 첫 학위논문, 학술논문, 학술저서

	학위논문		학술출판		언어 교육
	석사	박사	논문	단행본	
베트남	1964 (박희주, 정치학)	1969 (최삼섭, 의학)	1959 (조효원)	1966 (최상수)	1967 (한국외대)
태국	1967 (임종욱, 경제학)	1976 (고홍명, 경제학)	1974 (송인서)	1986 (김영애)	1966 (한국외대)
아세안	1972 (김대식, 정치학)	1977 (전웅, 정치학)	1970 (김한식)	1979 (전웅)	-
인도네시아	1964 (박희주, 정치학)	1983 (김영국, 경제학)	1962 (이극찬)	1967 (아담스) 1983 (극동문제연구소)	1964 (한국외대)
필리핀	1950 (성내운, 교육학)	1981 (김성철, 지역학)* 1992 (정영국, 정치학)	1962 (박형원)	1983 (임성한)	2014 (부산외대)
말레이시아	1975 (안영호, 언어학)	1965 (이범준, 정치학)* 1997 (홍석준, 인류학)	1966 (이범준)	1968 (이범준)	1964 (한국외대)
싱가포르	1978 (박형근, 경영학)	1986 (유상렬, 의학)	1965 (선우창원)	1986 (윤창국)	-
캄보디아	1991 (서정문, 정치학)	1992 (조재현, 정치학)	1967 (이호재)	1991 (이범준)	2014 (부산외대)
미얀마	1964 (박희주, 정치학)	1992 (박장식, 언어학)* 1996 (양길현, 정치학)	1968 (이호재)	1991 (극동문제연구소)	1992 (부산외대)
동티모르	2000 (김제니, 정치학)	2006 (정도생, 정치학)	1995 (양승윤)	2010 (양승윤)	-
라오스	2006 (손수학, 이학)	1985 (임봉길, 인류학)* 2007 (정미경, 개발학)	1969 (최영욱)	1991 (이범준)	2014 (부산외대)
브루나이	1993 (최신일, 정치학)	2018 (이종열, 공학)	1994 (양승윤)	2010 (양승윤)	1964 (한국외대)
동남아	1958 (이정목, 경제학)	1977 (이충원, 교육학)	1947 (췌대스)	1966 (피필드)	-

출처: 이한우, 김형준, 김홍구, 이미지, 정범모, 정미경, 오윤아, 김형중과 필자의 조사 결과 종합.

주의: * 해외 취득 학위.

대한민국의 동남아 관련 학위논문 기록은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엄청난 전쟁이 임박한 1950년 6월 5일에 성내운이라는 인물이 원고지에 작성한 논문을 성균관대학교에 제출한다. 동남아 관련 한국 최초의 석사학위논문이라 추정되는 그의 글은 한국전쟁의 화를 피하여 오늘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당시 논문에서 우리 초등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 필리핀 초등교육을 들춰보아야 하며 이런 작업이 “우리나라 초등 교육의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영광일 것이라 썼다(성내운 1950: 3-4).²⁾

국내 대학원에서 동남아연구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은 1969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월남참전 한국군대의 말라리아 발병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한 최삼섭의 논문이 전남대에 제출되었던 것이다.³⁾ 이어서 살충제에 대한 월남 벼룩의 저항력을 연구한 논문(황충현 1971)이 연세대에 제출되었고, 태국 경제(고홍명 1976), 아세안 형성(전웅 1977), 동남아 식민교육정책(이충원 1977)에 관한 박사논문도 제출된다. 그런데 만약 한국인이 외국에서 박사를 수여받은 것까지 포함하여 추적하자면 동남아연구 박사학위논문의 역사가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반에게 ‘한국 여성 정치학 박사 1호’로 알려진 이범준이 아메리칸대학교에 영국의 말라야공산당 진압 관련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때가 1965년이

2) 성내운(1926-89)은 교육학자이자 민권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저명인사이다.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로서 문과대학장까지 지냈으나 박정희 치하에서 해직되고 투옥되는 고초를 겪은바 있다(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그의 논문은 국회도서관 자료검색에서 1957년 논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검색에서는 1950년 8월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원문을 보관하는 대학 도서관에 문의하였고, 1950년 6월 4일에 제출된 논문이라는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머리말에는 4일로 적혀 있고 맺는말에는 5일로 적혀있다. 직접 확인하여 곧바로 답하고 육필 논문 전자사본까지 보내주신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김남숙 인문학술정보팀 장님께 감사드린다.

3) 최삼섭(1930-2000) 논문의 존재를 알려준 창원대 서지원 교수. 그 논문을 전남대 도서관에서 직접 촬영하여 전송해준 목포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의 최승연 박사께 감사드린다.

기 때문이다(Lee 1965). 다른 추가 발견이 없다면, 이화여대와 성신여대에 재직했던 이범준 교수가 ‘대한민국 동남아연구 박사 1호’라 불리게 될 것이다.⁴⁾

비슷한 시기에 동남아 관련 최초 학술서도 발간된다. 1966년에 최상수의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라는 학술 저서가 발간되었고 같은 해에 러셀 피필드(Russell H. Fifield)의 『미국의 동남아정책』이라는 학술서의 번역본이 발간되었다. 학술지 논문 게재는 더 시기가 앞섰다. 학술 논문으로 확인 가능한 최초의 경우는 중앙대 법대 발간 『법정논총』 5권에 게재된 동남아 화교 관련 논문(강병규 1957)이다. 그런데 정치평론까지 포함한다면, 동남아조약기구(SEATO)에 관한 글이 더 앞선다(구철회 1954). 만약 학술지 게재 번역문까지 감안하자면, 프랑스의 저명한 동남아역사학자 조르즈 쉐대스(George Cœdès)의 글이 번역되어 『진단학보』 15호에 게재된 1947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쉐대스[김영건 역] 1947).⁵⁾

<표 1>에는 특기할 만한 선구자들이 있다. 박희주는 1964년에 버마, 인도네시아, 월남 정치집단의 기능을 연구한 정치학 석사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여 동남아 3개국 관련 석사학위논문의 첫 필자가 되었다. 이호재는 한국외대 발간 학술지에 1967년과 1968년에 캄보디아 외교와 버마 군부에 관한 논문을 연이어 게재함으로써 이 두 나라에 관한 학술지 논문 첫 필자가 되었는데, 그는 한국외대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교수로 재직했던 분이다.⁶⁾ 동남아학계에 잘 알려진

4) 이화여대 교수였던 이범준(1933-2011)은 유신시대에 의원으로 활동했으나 함께 정치학 박사를 수여받았던 남편 박정수가 의정활동을 시작하자 다시 학계로 돌아왔다. 성신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남편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본인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암으로 요절한 딸의 이름을 따서 박성연장학회를 운영하기도 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5) 쉐대스의 글을 번역한 김영건이라는 학자가 1930-40년대에 인도차이나 관련 일본어 저술들을 남겼다는 윤대영(2009)의 발견은 ‘한인의 동남아연구’ 역사의 시원을 1930년대로 끌어올린다(최병욱 2015). 그렇지만 <표 1>에서는 해방 이후의 시기와 국내 출판의 경우로 제한하였다.

분들이지만 의외의 선구 대열에 포함된 분들도 있다. 베트남 연구자로 알려진 조재현 교수는 1992년에 박사학위논문으로 베트남의 캄푸치아 침공에 관해 저술함으로써 캄보디아 관련 박사논문의 선구자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연구자 양승윤 교수는 브루나이와 동티모르 관련 학술 논문(1994; 1995)과 저서(2010) 부문에서 상당히 뒤늦은 최초 필자로 추적된다. 최다기록보유자는 앞서 소개했던 이범준 교수로서 다섯 건에 걸쳐 선구로 등장한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관련 최초의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및 학술서(이범준 1968)의 필자이며, 캄보디아 및 라오스 관련 첫 번째 학술서 『동남아공산권연구』(이범준 1991)의 저자이다.

우리의 선구자 추적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한국 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에서 포괄 못하는 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해방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더 이른 선구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의 폭을 넓힌다면 한국의 동남아연구가 아니라 한인의 동남아연구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선구자들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만약 평론까지 분석 대상을 넓힌다면,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에 걸쳐 『신천지』와 『사상계』처럼 당대 지성을 대표하는 잡지에 동남아 동향을 담은 평론을 게재한 이들도 선구자 반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김예림 2012). 시인들의 작품 속에 동남아가 가깝게 공감하는 참조사례로 등장하던 시점도 해방 직후였다(윤영천 2008). 그러므로 <표 1>은 후속연구에 의하여 장차 수정될 운명에 놓인 그야말로 잠정적인 발견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견이 동남아학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6) 이호재 교수의 경력 정보를 확인해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신재혁 교수에게 감사한다.

있다. 그것은 ‘본산’의 정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동남아연구의 출범과 초기 전개는 탈중심적이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60년대 중반부터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선구적 역정은 언어교육 측면에 그친다. 동남아 관련 첫 번째 석·박사 학위논문을 쓴 27명 중에 한국외대 학부출신 학자는 3명뿐이고 박사학위를 한국외대에서 수여받은 이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외대는 동남아 언어교육의 본산이지 연구의 선구는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 동남아연구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1980년대 말부터 귀국하기 시작한 정치학자들은 1990년대 초에 동남아학계의 조직화에 앞장섰다(신윤희 1991). 그들은 실로 학계 형성의 기수였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앞서 동남아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친 이들이 이미 국내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기관이나 조직의 역사와 개별 학자들의 역사를 구분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1950-60년대의 시기가 한국의 동남아연구에서 ‘미지의 시대’가 아니라 ‘황무지’였다고 단정했다면 그런 오류는 학계라는 조직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학계와 학문의 관계에 관한 성찰은 학계의 역사와 연구의 역사를 분리시켜 보는 태도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국에서 동남아 연구 초창기는 ‘탈중심의 개인사’로 살펴봐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연구의 역사는 ‘본산의 정서’를 무색하게 만든다. 본산이 없다는 것은 누가 ‘유산 승계의 적자’인지를 따지는 무의한 시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다.⁷⁾

이러한 발견적 추적은 연구와 시대의 관계에 관해서도 새로운 관심을 요청한다. 동남아연구의 개별적 시도들이 1950-60년대에 빈번하게 발생했다면, 그 선구자들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 형성에 미친

7) 민족주의가 ‘과거 유산’이 아니라 ‘미래 기획’과 관련이 깊다고 본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99)의 시각에서 착안하였다.

시대상황에 새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 해외투자, 독재와 민주화 등 1970-80년대식 변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작동하던 오래된, 그래서 어쩌면 낡아 보이는 사건들을 변인으로 끄집어내고 재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 국민국가 형성, 식민유산 극복, 인도차이나전쟁, 반동회의, 비동맹운동, 아세안의 형성 등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로 인하여 해방과 분단, 열전과 냉전의 시기를 거치는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동시대 동남아에서 전개되던 정치변동과 국제관계가 깊이 관심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참조사례로 일찍이 다가왔던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⁸⁾

Ⅲ. 연구 축적: 다원적 성장

한국에서 동남아 관련 학술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축적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및 학술 단행본 집계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학위논문은 베트남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관련 논문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 베트남 관련 학위논문이 인도네시아 관련 학위논문의 세 배나 되기에 학위논문의 측면에서 베트남 연구의 우위는 압도적이었다. 학술지 논문 수도 베트남 연구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였다. 2010년 이후 베트남 연구는 학술지 논문이 연간 100편을 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강력한 위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연구가 한국의 동남아연구에서 선두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독특한 현상일 것이다.⁹⁾

8) 동남아 전문가가 아니지만 김예림은 1945-55년 사이에 한국의 지성이 아시아를 열렬히 호출하였으며 당시 동남아의 상황 변화가 아주 중요한 참조 사례로서 열거되었다는 주장을 일련의 논문들을 통하여 전개한 바 있다(김예림 2007 및 2012).

9) 국제 동남아학계에서 최대 집단은 인도네시아연구 집단일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에

<표 2> 동남아 관련 국내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및 단행본¹⁰⁾

학위 논문*	석사	박사	계	학술 출판	학술지 논문	학술 단행본**
베트남	-	-	1,247	베트남	1,459	-
인도네시아	410	52	462	싱가포르	1,405	22
태국	318	52	370	태국	704	25
캄보디아	257	15	272	인도네시아	672	41
싱가포르	251	14	266	필리핀	409	30
필리핀	217	38	255	아세안	301	67
아세안	155	8	163	말레이시아	274	11
미얀마	134	27	161	캄보디아	253	23
말레이시아	85	11	96	미얀마	212	10
라오스	84	9	93	라오스	115	7
동티모르	38	2	40	브루나이	8	1
브루나이	7	1	8	동티모르	7	2

출처: 이한우, 김형준, 김홍구, 이미지, 정범모, 정미경, 오윤아, 김형중과 필자의 조사 결과 종합.

주의: * 학위논문은 현지인 유학생 논문 포함.

** 학술단행본은 학술적 저역서에 한하며 어학교재, 사전, 전기, 문학, 정책보고서 제외.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싱가포르 관련 논문이 두 번째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관련 학술논문의 규모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웠다. 싱가포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내 학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관련 학술지 논문의 대규모 축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프라, 무

서는 인도네시아연구와 태국연구가 동남아연구의 양대 축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일본의 동남아 역사연구 분야 저서나 학술논문에서도 인도네시아연구가 양적으로 최선두 자리를 점하고 있다(유인선 2010).

10) 이 표는 시간적 범위가 사례마다 다른 한계를 지닌다. 분석대상의 시작 시점은 해방이후지만 그 끝은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펼쳐진다. 베트남 연구는 2015년까지, 라오스 연구는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아세안 연구는 2017년까지, 캄보디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연구는 2018년 8월말까지 파악한 결과이다.

역, 주택, 행정, 정치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싱가포르가 한국인 학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매력적인 사례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서 학술지 논문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세안, 말레이시아관련 논문 순으로 많았다. 전문연구자가 극소수인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 관련 학술지 논문도 적지 않게 발간되었으며, 특히 라오스 연구논문의 수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 동남아연구 성과가 날로 증가하지만, 동남아 각국과 관련 국가들에서도 동남아연구 성과가 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동남아 연구가 국제 비교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도 상당한 성장을 달성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ASEAN 관련 학술논문 목록을 추려내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아세안 연구가 생산성 차원에서 1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위는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일본, 필리핀, 중국, 한국 순이었다. 그런데 최근 5년으로 잘라보면 연구 생산성이 오히려 12위로 떨어졌다고 한다(김선희 2018: 137-38).

양적 성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한 면모는 연구 주제의 다원화 현상이다.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역사, 어문학 분야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 이학, 공학, 신학, 교육학 분야로 넓혀졌다. 특히 사회 문화 분야 연구가 크게 약진하였다. 베트남 관련 학술연구의 수는 사회, 경상, 역사 분야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주 연구가 사회 분야의 우위를 이끌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이한우 2013). 2010년대 이후 필리핀 관련 학술지 논문의 수에서도 사회와 문화 분야가 선두를 차지하여 정치와 경제 분야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범모 2018). 말레이시아 연구에서도 사회 문화 연구가 양적 우위를 보여 주었다(김형중 2013).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이공학 분야의 약진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사회 문화 분야에 이어 이공학 분야의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경제 통상 분야나 정치 외교 분야 연구보다도 많았다(김형준·전제성 2013). 인도네시아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한국과 다양한 교류협력이 전개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연구에서 교육 분야 논문이 다수인 현상도 새로웠다. 태국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인정되었기에 태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김홍구·이미지 2017). 연구 분야의 다원화 추세 속에서 정치 외교 분야 연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치연구의 순위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연구 영역에서만 나타난다. 이 나라들에서 통치세력의 영향력이 커서 정치적 변수가 중요하고 현지조사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어서 사회 문화 연구의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학위논문에 대한 동남아 출신 한국유학생들의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다. <표 2>에서 동남아 관련 학위논문이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이유는 현지인 유학생들의 논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유학생 논문은 학위논문 수에서 국가별 순위를 바꾸기도 한다. 이를테면 캄보디아 관련 학위논문이 싱가포르나 아세안 관련 학위논문보다 많은 이유는 동남아 출신 유학생 논문덕분이다. 최근에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의 학위논문이 더욱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 관련 국내 학위논문에서 미얀마 학생의 논문이 한국 학생 논문의 3배 이상이었다. 2000년대 중반에 베트남 관련 국내 학위논문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베트남 학생 학위논문이 2010년부터 내국인 논문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이한우 2013). 이보다는 덜하지만, 캄보디아 학생 논문이 2000년대 캄보디아 관련 국내 학위논문의 60%를 차지하였고(정미경 2014), 태국 학생 논문이 2010년대 전반기 태국 관련 국내 학위논문의 54%(김홍구·이미

지 2017), 인도네시아 학생들의 논문이 최근 3년간(2015-17년) 인도네시아 관련 국내 학위논문의 5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동남아연구에서 “초국가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선발국들에서 그랬듯이 “지역연구의 활력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프리윗 1998: 255-56).

그런데 연구 성과의 다원적 증가와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가 희소한 지역이 존재한다. 동티모르 관련 국내 학위논문은 2000년 석사논문으로 시작하여 2018년까지 40편에 불과했다. 대다수 연구는 과병이나 UN 활동 관련 연구였다. 박사논문은 비교연구 두 편뿐이었고 단일 사례연구는 아직 제출된 적이 없었다.¹¹⁾ 브루나이에 관한 국내 학위논문은 총 8편에 불과했으며 박사논문은 2018년에 제출된 생태공학 비교연구 논문이 처음이고, 내국인에 의해 작성된 인문사회계 논문은 1993년에 제출된 최초의 석사학위논문이 지금까지 유일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브루나이와 동티모르에 관한 본격적인 지역연구는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연구 축적의 또 다른 차원의 격차를 <표 2>가 보여준다.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축적 규모에 비해 학술 저서의 축적 규모는 보잘 것 없다는 것이다. 최근의 변화까지 포함하면서도 학술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저서가 희소하고, 학생들과 함께 읽을 만한 교재마저 부족한 현실이다. 몇 안 되는 번역서들 가운데 동남아 지역연구를 대표하는 고전적 명저들이 포함되지 못한 실정도 문제다. 단행본 저술과 번역을 저평가하거나 제외시키는 교수 채용 및 승진 제도, 대학

11) 이 논문 탈고 직전에 한국인이 동티모르 단일사례연구로 박사논문을 작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방문연구원으로 와있는 유민지 박사 본인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논문 정보를 얻었다. Minji Yoo, “Hybrid State Formation in Timor-Leste,”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2017.

평가 방식의 문제를 탓할 수 있지만, 우리 동남아 연구자들도 그동안 계몽적 역할을 등한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V. 연구자 규모: 학계의 포괄성 문제

동남아 국가나 아세안 관련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한국인 학자의 수는 점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새로 출현하고, 덕분에 학계가 지속적으로 충원될 수 있었다.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발전과 동남아-한국 관계의 발전이 지속되었기에 동남아 전문연구자 수의 증가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발견은 그들의 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동남아 사례를 연구한 한국인 박사가 1965년 이래 40여년에 걸쳐 331명이나 출현하였다. 2015년까지 등장한 베트남 연구 박사만 101명에 달했다. 이런 규모는 2000년의 일본베트남연구자회 회원 수, 그리고 유럽 전체의 베트남연구자 수와 같다고 한다(이한우 2013). 국가별 전문연구자 규모는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연구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표 3>에 그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최근 추이에서 국가별 연구자의 증가 정도는 각기 달랐다. 인도네시아 연구로 국내외에서 박사 논문을 제출한 한국인은 최근 10년간(2008-2017년) 28명이었다(국내박사는 15명). 연평균 2.8명의 신진박사가 출현한 것인데, 이는 이전 10년의 연평균 1.2명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내외에서 태국 연구로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한국인은 최근 10년(2006-2015년)간 평균 1.2명이었고, 이 역시 이전 10년간(1996-2005년) 평균 1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김홍구·이미지 2017). 베트남 관련 연구로 박사논문을 제출한 이들도 최근 10년간

(2006-2015년) 연간 4.5명 출현했고 이 역시 이전 10년(3.4명)에 비해 늘어난 것이었다.

<표 3> 한국인 동남아 연구자 규모와 동남아 학계의 포괄성

	전문연구자(A)*	한국동남아학회원(B)**	학계의 포괄성(B/A, %)
베트남	101	24	24
인도네시아	68	25	37
필리핀	42	8	19
태국	29	18	62
말레이시아	27	10	37
아세안	18	4	22
미얀마	15	8	53
싱가포르	12	2	17
캄보디아	8	2	25
라오스	7	2	29
동티모르	3	0	0
브루나이	1	0	0
계	331	103	31

*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을 국내외에서 작성한 내국인 수. 이한우, 김형준, 김홍구, 이미지, 김형중, 정범모의 조사와 필자의 조사 종합.¹²⁾

** 한국동남아학회 2017년 재적회원 333인 대상 김형중 총무이사의 전문가 분류결과.

신진연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연구지역이 존재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브루나이에 관한 전문연구자가 각기 10명 이하였다. 특히 동티모르 연구자는 3명, 브루나이 연구자는 1명에 불과한데, 이들 모두 한국동남아학회에 회원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남아학계 차원에서 동티모르와 브루나이 연구는 부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저

12) 전문연구자 추산은 박사논문 기준이므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더 줄거나 늘 수 있다. 베트남연구자는 베트남 관련 박사논문 작성이후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이들만 따로 골라내면 40명으로 줄어들고, 인도네시아연구자는 동남아전문 학술지에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을 게재한 학자들까지 포함시키면 84명으로 늘어난다. 전문연구자 추산의 각기 다른 시간적 범위는 주 10과 같다.

성장 지대도 존재한다. 말레이시아 연구 국내박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1명에 불과하고, 아세안 연구 국내박사는 8명뿐이라니 그 저 놀라울 따름이다(김형중 2013; 2017). 그래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연구자를 합치면 동남아 전문연구자의 절반이 되는 불균형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집계한 전문연구자의 수를 한국동남아학회 김형중 총무이사가 333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제공한 학회내 전문가 정보와 대조시키면, 흥미로운 결론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학계의 낮은 포괄성 문제이다. 연구대상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총계로 볼 때 동남아 국가나 아세안 관련 박사논문을 작성한 331명 중에서 103명만이 한국동남아학회의 회원이다. 즉 동남아 학계의 전문가 포괄성은 31%에 불과하다. 동남아 전문연구자 셋 중에 둘은 우리가 모르거나 함께하지 않는 이들인 것이다.

학계의 낮은 전문가 포괄성 문제는 왜 발생하였을까? 그 주된 원인은 동남아연구의 분야별 분절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연구동향 분석(김홍구·이미지 2017; 김형준·전제성 2013)은 어문학과 나머지 인문사회과학 사이의 분절 현상, 한국외대 출신 학자와 그 밖의 대학 출신 연구자들 사이의 분절 현상을 지적하였다. 인문사회과학 내부의 분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분절은 인문사회계 연구자와 이공계 연구자 사이의 분절이다(김형준·전제성 2013). 한국동남아학회는 김형중 총무이사의 분류에 따르면 2017년 재적회원 333인 가운데 이학 및 공학 연구자 3인, 의학 연구자가 1인뿐이었다. 인문사회계 동남아연구자 대다수는 이공계 동남아 연구자들을 대면한 적도 없을 것이다. 지역연구의 중요한 덕목인 학제성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¹³⁾

13) 동남아연구에서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학자들의 연구협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교토대학교 동남아연구소(CSEAS)가 그 형성의 역

동남아학계 내부적으로는 학문후속(혁신)세대 육성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즉 인문사회계 후속 연구자들이 대거 등장하였다면, 학문적 분절 현상이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인문사회계 동남아 전문 신진연구자의 등장 추이를 한국동남아학회와 한국동남아연구소 회원 수를 지표삼아 추정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에 한국동남아학회의 국가별 전문가는 73명으로 집계되었는데(박승우 2009: 235 표 11), 9년이 지난 뒤에 99명으로 늘었으니 연평균 2.9명 증가했던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의 회원은 2005년에 40명이었는데 2018년에 63명으로 늘었다. 13년간 연평균 회원증가 1.8명이었다.

우리 학계의 저성장은 갈수록 동남아연구 필요성이 강조되는 정세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 학계가 투여해온 막대한 노력에 비해서도 황망한 기대이하의 추세이다. 동남아학계는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18년간 연인원 94명의 석박사과정생 학위논문 현지조사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부터 10년간 연인원 103명의 대학원생들을 단기 현지연수로 파견하였다. 투자에 비해 산출이 보잘 것 없었던 것이다.¹⁴⁾ 이런 결과는 또한 우리 학계가 재생산만이 아니라 포괄성 증대에 당장의 노력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시한다. 더디게 출현하는 미래의 학자들만 바라보지 말고 도처에 산재된 현재의 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Hayami 2006: 67)는 물론이고 최근 대규모 공동연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전제성 2011).

14) 학문후속세대 재생산을 위한 동남아학계의 전략적 프로그램들은 대학 밖에서 자극과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외재적'이었다. 그런데 동남아 교육과정을 개설한 학부가 전국에 4개 대학뿐이고 인문사회계 주요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동남아 전문 교원이 희소하다는 구조적 약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문사회계 동남아연구자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국내 대학의 동남아 교육과정 최근 현황은 하채균 2018).

V. 맺음말: 학계의 당면과제로서 포괄성 증대

한국에서 동남아연구가 다원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연구 성과의 축적도 상당하다. 그런데 동남아학계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포괄성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학계의 포괄성 증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남아학계의 포괄성을 증대할 주체는 한국동남아학회일 수밖에 없다. 1991년에 창설된 한국동남아학회는 머지않아 30주년을 맞이한다. 자기중심성을 충분히 형성한 우리 학회가 다각적 접점을 제공한다면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것이다. 그러려면 학회가 유지와 관리 중심의 운영기조를 진취적으로 탈피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의 내적 분절을 극복하고 이공계까지 포괄하는 접점을 형성하는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학회 속에 주제별 연구회와 국가별(하위지역별) 연구회를 결성하고 자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요약하자면 분권과 자율이다. 주제별 연구회의 예로서 개발협력, 재난대응, 보건생명, 생태환경(해양, 산림, 하천), 예술미디어 연구회가 먼저 상상된다. 학제적 연구가 특별히 더 필요한 주제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인문사회계를 넘어 이공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제영역이다.

국가별 연구회는 인도네시아·동티모르연구회, 베트남·캄보디아 연구회, 태국·라오스연구회, 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연구회 식으로 구상된다. 이렇게 인접하고 문화 역사적으로 얽힌 나라들을 묶어서 연구자들을 조직한다면, 본연의 관심 국가 연구는 물론이고 전문연구자가 극소수인 국가 연구까지 함께 촉진하는 기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가별 연구회는 한국베트남학회나 한국태국학회 같은 국가별 연구학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은 연구회들은 같은 국가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어울리는 커다란 접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작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회들은 국가 및 주제의 관심을 공유하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학술 단행본 출판 기획의 산실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학계의 포괄성뿐만 아니라 계몽성까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학계의 낮은 포괄성 문제는 학문간 분절뿐만 아니라 국적간 분절 문제와도 관련된다. 동남아 관련 국내 학위논문의 절반 이상을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이 작성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현지인 대학원생을 학회에 참여시키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별 또는 주제별 연구회나 관심을 공유하는 국가나 주제에 관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현지인 대학원생을 초대하는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국가별 연구회가 한국의 동남아 공관들을 통하여 국가별 유학생회를 접촉해볼 수도 있겠고 주요 대학의 국제교류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에게 학술회의 발표와 학회지 투고를 권하고 한·아세안학술교류기금의 현지조사,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관계를 형성하면 좋겠다. 그들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이득으로 안겨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국익에 편향될 가능성을 줄이고 취약한 국가 및 주제에 관한 연구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¹⁵⁾

대학은 학계의 포괄성 강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여러 대학에 동남아 관련 교육과정과 연구소들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거

15) 동남아 출신 국내 대학교원들도 각종 위원회에 초대될 수 있다면 현지인과 함께하는 학계 형성에 더 큰 탄력이 가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재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한아세안센터의 하채균 선생이 현황을 파악하고 재한아세안 교수회 결성을 지원하려는 유익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점들의 자원이 모아질 수 있다면 한국동남아학회의 학술대회는 지금처럼 조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계의 포괄성을 높이는 과제에 있어서도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거점들이 기여할 바가 있다. 같은 대학의 교원들과 유학생들은 소속이 같기에 학문분과와 국적을 초월하여 자연스레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 속한 학회원들도 동남아연구의 분절을 극복하는 개별적 접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각 대학의 동남아연구자들에게 자기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을 찾아보고, 자기 대학에서 동남아 관련 프로젝트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교원들을 찾아서 만나보라고 제안하고 싶다.¹⁶⁾

포괄성 증대가 핵심을 약화시킬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동남아학계는 외연의 확장이 자칫 내포를 흐릴까 걱정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남아학계는 중심이 분명한 집단으로 발전했다. 문제는 핵심의 여력이다. 사람을 모으는 일도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니 취지에 찬동하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천천히 실험적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16) 2012년에 교토대학교 동남아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동남아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교토대 교원이 194명으로 집계되었다. 연구소 측도 예상보다 많은 놀라운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결코 교토대 수준일 수는 없지만, 전북대에서도 동남아에 깊은 관심을 피력하는 교원이 필자가 아는 이들만 10명이나 되었다.

〈참고문헌〉

- 강병규. 1957. “동남아세아화교에 대한 고찰.” 『법정논총』 5: 48-69.
- 고홍명. 1976. “태국의 경제사회 개발계획과 개발재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 구철희. 1954. “동남아조약기구 SEATO의 성립과 한 중 일의 장래.”
『지방행정』 3(5): 41-48.
- 강희정. 2018. “외연의 확대, 지평의 확산: 동남아 미술 연구 10년.”
『동남아시아연구』 28(3): 43-74.
- 김선희. 2018. “ASEAN 관련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아시아리뷰』
8(1): 131-152.
- 김소연·강하니. 2018. “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28(2): 47-84.
- 김영애. 1986. 『태국사』. 한국외국대학교출판부.
- 김예림. 2007.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해방-
한국전쟁후(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
허학보』 20: 311-345.
- _____. 2012. “1950년대 남한의 아시아 내셔널리즘: 동남아시아를
정위하기.” 『아세아연구』 55(1): 130-161.
- 김제니. 2000. “The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ism: The comparative case studies
on Kosovo and East Timor.”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김형중. 2013. “한국의 말레이시아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3(2):
107-138.
- _____. 2017.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아시아리
뷰』 7(1): 199-225.

- 김형준·전제성. 2013.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 『아시아리뷰』 3(1): 73-108.
- 김홍구·이미지. 2017. “한국의 태국 연구: 동향과 과제.” 『아시아리뷰』 6(2): 297-336.
- 나희량. 2012.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 학술지 분석 및 방향성 모색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2(2): 43-93.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5.
- 박번순. 2011.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 『아시아리뷰』 1(1): 227-258.
- 박형근. 1978. “아시아 달러시장에서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연구: 싱가포르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주. 1964. “동남아세아 정치집단의 역할: 버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 고려대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 서정문. 1991. “캄푸치아분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우창원. 1965. “Tuberculosis Control in Singapore(싱가폴에 있어서의 결핵관리).” 『최신의학』 8(10): 73-101.
- 성내운. 1950. “비율빈 초등교육의 몇가지 문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수학. 2006. “라오스산 사파이어에 대한 보석광물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지질학 석사학위논문.
- 신윤환. 1991. “동남아정치연구회.” 『대우재단소식』 38: 45-47.
- _____. 2015.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동남아시아연구』 25(4): 37-75.

- 셰대스, 죠르즈(김영건 역). 1947. “제7-13세기의 남해제국.” 『진단학보』 15: 495-512.
- 아담스, 신디. 1967. 『수카르노』. 동아PR연구소.
- 양승윤. 1994. “술탄왕국 브루나이의 정치발전 전망.” 『동남아연구』 3: 121-133.
- _____. 1995.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합병에 따른 문명충돌 연구.” 『동남아연구』 4: 157-180
- _____. 2010. 『동티모르·브루나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여운경. 2016. “경계 넘기와 새로운 시각의 모색: 2012~2015년 동남아시아사 연구동향.” 『역사학보』 231: 377-398.
- 오명석·김형준·최호림·조홍국·최병욱·김영애·박사명·정연식·박은홍·배궁찬·박번순. 2008. “기획좌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 학문분야별 회고와 성찰.” 『동남아시아연구』 18(2): 331-399.
- 오윤아. 2013. “한국의 미얀마 연구 동향.” 『아시아리뷰』 3(2): 139-160.
- 유상렬. 1986. “Singapore 시민 및 집취의 신증 후 출혈열 병원체에 대한 혈청역학적 조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인선. 2010. “일본에서의 동남아시아사 연구동향, 1990-2007.” 『동양사학연구』 110: 335-369.
- 윤대영. 2009. “김영건의 베트남연구 동인과 성격: 1930-40년대, 그의 전변무상한 인생 역정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연구』 19(3): 57-100.
- _____. 2012. “한국 동남아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흐름.” 『역사학보』 215: 329-348.
- 윤영천. 2008. “동남아시아와 한국 현대사.” 『동남아시아연구』 18(1): 1-36.

- 윤창국. 1986. 『싱가폴의 발전론』. 문성당.
- 이범준. 1968. 『말라야공산계렬라전 연구: 영국정부의 진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_____. 1991. 『동남아공산권연구: 베트남, 캄푸치아, 라오스』. 박영사.
- 이정목. 1958. “후진국경제개발을 위한 자본형성문제: 특히 동남아 제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열. 2018. “산림탄소모델(FBDC 모델) 개발을 통한 한국, 터키, 브루나이 산림탄소 저장량 및 변화량 추정.”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충원. 1977.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구미제국의 식민지교육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한우. 2013. “한국의 베트남 연구.” 『아시아리뷰』 3(1): 109-158.
- 이호재. 1967. “약소국 캄보디아의 외교정책과 그 문제점.” 『해외문제』 3(1): 62-70.
- _____. 1968. “버마 군부의 성장과 정치.” 『해외문제』 4(1): 91-117.
- 임봉길. 2005. 『아편을 재배하는 사람들: 동남아 산간지역과 중국 남부 Hmong(Miao) 족에 관한 인류학적 조사』. 서울대학교출판부. v-viii, 3-6.
- 임성한. 1983. 『필리핀정치론』. 법문사.
- 전 응. 1977. “지역통합이론과 ASEAN: 신기능주의의 경험적 검증.”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109-140.
- _____. 2010.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정치학계의 기여.” 『국제정치논총』 50(2): 237-249.
- _____. 2011. “참관기: 제2차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 공동 국제학술회의.” 『동남아시아연구』 21(3): 299-303.
- _____. 2014.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과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379-392.
- 정도생. 2006.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PKO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2007. “Theravada Buddhism and Economic Development in Mainland Southeast Asia: A case study of Laos.”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4. “한국 학계의 캄보디아·라오스 연구: 현황과 쟁점.” 『아시아리뷰』 4(1): 95-136.
- 정법모. 2018. “한국의 필리핀 연구: 풍부한 필리핀 대학 학위자, 부족한 필리핀 연구자.”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 조재현. 1992. “제3차 인지전쟁 연구: 공산체제내 베트남과 캄푸치아간 전쟁(1978.12.-1979.1.)의 원인분석.”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 최병욱. 2015. “한월관계사에서 동남아시아사로: 동남아시아사 연구 동향 50년.” 『동양사학연구』 133: 463-480.
- 최삼섭. 1969. “월남에 있어서 한국군에 발생한 마라리아에 대한 역학적 조사연구.” 『전남의대잡지』 6(2): 195-206.
- 최신일. 1992. “브루나이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 약소국의 외교논리와 관련하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욱. 1969. “아세아 지역내 신생 5개국의 초등 교육 과정 현황에 대한 소고: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33: 125-151.
- 프리윌, 케네스. 1998. “1980년대의 지역연구.” 김경일 편저. 『지역

- 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247-258.
- 피펴드, R. H.(국제문제연구소 역). 1966. 『미국의 동남아정책』. 삼익출판사.
- 하채균. 2018. “한-아세안 협력의 ‘약한 고리’: 한국의 동남아시아 교육.”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토크 2018-07.
- 황충현. 1971. “월남의 flea index와 살충제에 대한 벼룩의 저항력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nderson, Benedict. 1999. “Indonesian Nationalism Today and in the Future.” *Indonesia* 67: 1-11.
-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Chapter 1. 1-16.
- _____. 1971. *On Democracy*.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Chapter 8. 83-99.
- Hayami, Yoko. 2006. “Towards Multi-Laterality in Southeast Asian Studies: Perspectives from Japan.”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65-85.
- Lee Bum-Joon. 1965. “The British Experience of Counterinsurgency in Malaya: The Emergency, 1948-1960.” Ph.D. Dissertation, The American University.
- Park Seung Woo and Victor T. King. eds. 2013.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Korea and Beyo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troduction. 1-42.

(2018.10.16. 투고, 2018.10.17. 심사, 2018.11.14. 게재확정)

<Abstract>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Revisited: Pluralistic Growth and Lack of Inclusiveness

JEON Je Seo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in a comprehensive way and to set a new task for our academic community. To do this, I tried to analyze the total amount and trends of scholarly achievement (thesis, journal articles, and academic books). The content is divided into research history, research accumulation, and researcher scale. The history of research dates back more than we thought and was decentralized. Research accumul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pluralistic. The number of researchers from various academic fields was higher than expected. The newly discovered Southeast Asian studies of Korea suggests the task of increasing the inclusiveness of our academic community. The KASEAS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seems to be narrow and stagnant compared to the trend of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which is constantly growing quantitatively, academically spreading, and transcending nationality. In order to increase the inclusiveness of the KASEAS, efforts should be made to open a variety of decentralized and autonomous study groups, to invite domestic graduate students from Southeast Asia, and to spread the

university's foothold as a point of contact between pluralistic disciplines.

Key Words: KASEAS, academia, area studies, area specialist, inclusiveness, Korea, Indonesia, Vietnam,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Myanmar, Cambodia, Laos, Singapore, Brunei, East Timor, ASEAN.

